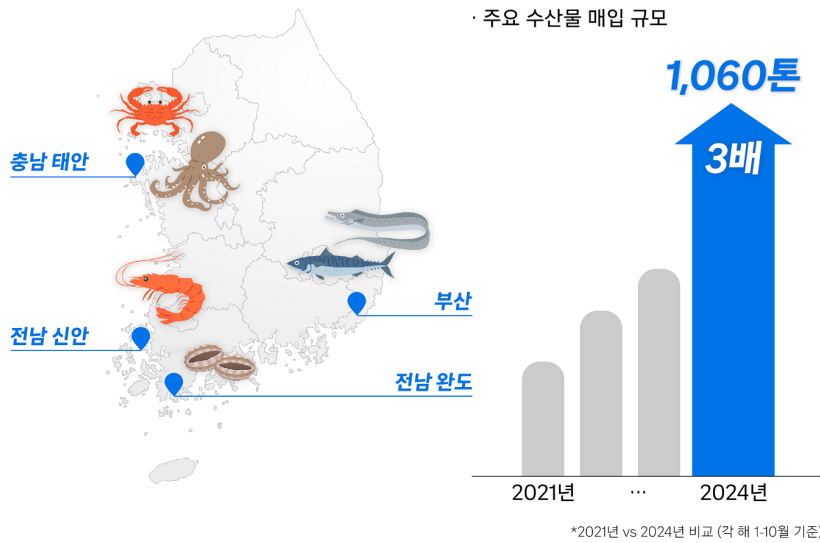


[보도자료] 쿠팡 올 들어 산지직송 수산물 매입 1000톤 돌파, 3년 만에 3배 ‘깡충’..”지방 어민 버팀목으로”

2024. 11. 17.

쿠팡 산지직송 수산물 매입 현황



쿠팡 산지직송 수산물 매입 현황

- 쿠팡, 지방 어가 산지직송 수산물 매입량, 3년 만에 3배 확대
- 부산 고등어부터 충남 태안 꽃게까지..유통구조 혁신이 동반성장으로
- 지방 어가 “고수온 등 기후변동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

2024. 11. 17. 서울 - 주문 이후 빠르면 다음날 아침 갓 잡은 수산물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산지직송 매입 물량이 올 들어 1000톤을 넘어섰다. 산지직송은 대한민국 최남단 진도나 완도, 서해와 동해안에서 잡은 싱싱한 수산물을 최대 400~500km 달려 고객 집 앞에 배송하는 서비스다. 폭염 등으로 인한 고수온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데다 판로가 지역 상권에 머물러 어려움을 겪던 지방 어가와 수산물업체들의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고 전국 고객으로 판로를 넓히는 핵심 서비스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한길수산의 박진형 대표

◇부산 고등어부터 태안 꽃게까지..기후변화 위기속 매입량 크게 늘어

쿠팡은 17일 올 들어 1~10월 동안 로켓프레시 산지직송 수산물 매입 규모가 역대 최대인 1000톤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쿠팡의 산지직송 수산물 매입 규모는 서비스 도입 첫해인 2021년 1~10월 370톤에서 2023년 같은 기간 780톤으로 늘었는데 올 들어 1060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3년 만에 수산물 매입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쿠팡이 전남도와 포항시 등 전국 지자체와 수년 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역 어민의 판로를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다.

산지직송 구매 가능 어종은 첫해 전북·오징어·새우·과메기 등 3~4가지에서 올해까지 꽃게·고등어·갈치·주꾸미 등 30여가지로 늘었다. 산지직송 지역은 전라도 해남부터 부산(동해안)과 마산(남해안)·충청남도 태안(서해안) 등 전국으로 확대됐다.

고수온과 적조현상 등으로 어획량 감소 현상이 잦은 충남 태안은 쿠팡이 가장 많은 수산물을 매입한 곳이다. 쿠팡은 충남 태안에서 봄(꽃게·주꾸미)과 가을(꽃게)을 맞아 수산물을 올해 1~10월 420톤 매입했다. 2021년 같은 기간(140톤)과 비교해 3배 늘어난 것이다. 부산(고등어·갈치)에서 매입한 수산물은 390톤으로 3년 전보다 2배 늘었고, 전라남도 완도(전복)와 신안군(새우)에서도 220톤을 올해 사들였다.

산지직송은 어획 시즌을 맞아 갓 잡은 싱싱한 수산물을 현지에서 즉시 포장하고 검수와 검품을 거친다. 이후 쿠팡 배송캠프를 거쳐 최종 배송되는데 오후 1시까지 주문하면 빠르면 18시간 안에 배송 완료된다. 냉동 탭차로 배송하기 때문에 신선도와 배송품질이 유지된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한길수산의 임직원 모습

◇ 지방 어가들 “어획량 감소·고비용 유통구조 등 어려움 해소..투자·고용 늘려요”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어가 인구는 8만 명(2023)으로 10년 전 14만 명(2014)으로 40%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지역 어민들은 “불경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고비용 유통구조, 판로 확대 어려움 등 ‘3중고’를 쿠팡으로 극복, 새로운 성장기회를 맞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쿠팡 이용 수요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수산물 주요 구매층인 40~50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전남 신안군에서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는 박진형 한길수산 대표(41)는 쿠팡에 입점한 2021년과 비교해 올해 매출은 2배 증가한 80~90억원대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 입점 전 다른 오픈마켓을 이용해 새우 판매에 뛰어들었지만, 일반 택배는 배송기간이 긴 데다 파손위험 리스크가 발생해 연 매출이 절반으로 곤두박칠 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는 “오픈마켓뿐 아니라 납품가가 들쭉날쭉한 도매시장에선 제값을 받고 상품을 납품하기 어려웠다”며 “고속성장으로 생산지역을 전남 전체로 확대했고 판매 어종도 늘렸다”고 했다.

경남 수산물업체 명보씨푸드도 2년 전과 비교해 올해 매출은 2배 오른 60억 원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 쿠팡 입점 이후 지역 마트에서 전국으로 판로가 확대되면서 직원의 30%가 쿠팡 산지직송만 전담한다. 김기수 명보씨푸드 대표(49)는 “쿠팡 매입 물량이 크게 늘면서 담당 직원도 늘리고, 내년엔 생산시설을 크게 늘리는 투자를 계획 중”이라며 “기후변화 등 위기 상황에서도 쿠팡이 제값을 받고 물량을 매입해 어민들에게 인기가 최고”라고 했다.

충남 태안군과 서산시를 지역구로 둔 성일종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태안군 어민들의 피땀어린 수산물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판로 확장 및 매출 확대를 통해 어민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쿠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수산물이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쿠팡은 앞으로 지방 어가들이 생산한 품질 높은 수산물 매입을 확대하고, 고객 기획전 등을 수시로 개최해 이들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경영 위기에 놓인 지역 어가의 성장을 도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